

# 에틸렌, 합성수지 때문에 “폴죽다”

## 합성수지 수요저조가 큰 원인 ... VCM 플랜트 트러블로 수요 줄어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아시아 NCC(Naphtha Cracking Center)의 정기보수 시즌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틸렌(Ethylene) 및 프로필렌(Propylene) 등 기초유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Olefin 무역상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 시장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거래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합성수지의 원료로 2004년 들어 세계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져 1-2월 가격이 각각 톤당 219달러, 125달러씩 폭등했으나 3월말부터는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2월초부터 톤당 900달러까지 폭등한 PE(Polyethylene) 가격강세로 중국의 합성수지 무역상들이 구매를 거부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격동결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상들은 “1월 Shortage였던 나프타 가격이 안정세 접어들고 Down Stream인 합성수지 수요가 약세로 돌아서 석유화학기업들이 NCC 가동률을 다소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2월 국내 에틸렌 크래커 가동률은 102.3%로 1월의 109.2%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Down Stream의 수요약세는 일부 VCM(Vinyl Chloride Monomer) 플랜트들의 트러블에 따른 것으로 타이완의 Formosa가 Kaoshiung(24만톤)과 Mailiao(18만톤) 플랜트를 3월20일과 23일 임시보수했고, 대산의 LG화학이 기계적 결함으로 3월29일부터 VCM 플랜트 보수에 들어갔다.

에틸렌은 3월26일 FOB Korea 톤당 745달러, 프로필렌은 FOB Korea 670달러로 실제거래는 거의 없고, Idea Deal만이 형성되고 있는데, 무역상들은 “아시아 에틸렌 시장이 크래커의 정기보수일정으로 공급이 타이트하지만 합성수지 가격이 고공행진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고 전했다.

아시아의 NCC 4월 정기보수는 호남석유화학(70만톤)이 4월 1일부터 30일간, 현대석유화학이 제1단지(45만톤)를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계획하고 있고, 일본의 Tosoh(49만3000톤)와 Sanyo Petrochemical(43만3000톤)이 3-4월 40-45일간 정기보수에 들어갔다.

또 일본의 Mitsubishi Chemical, Maruzen Chemical, Tonen Petrochemical 등이 5월부터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 Olefin 수급은 타이트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4월1일(한국시각)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Oil 생산량 감산결정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06>